

지역 소식통

김제시 간부공무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김제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금산사 매표소 앞 선별상담소,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24시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김제역, 김제 시외버스터미널, 우석병원 등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발열 상태를 체크하고 고열자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제시 국·소장 읍면동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하여 김제시외버스터미널, 김제역에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안전과 침정지역 김제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현장 점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관·장애인시설·지역자활센터 및 보호회관 등 15개소를 현장 방문해 시설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주민복지과장을 반장으로 4개의 반을 편성하여 최근의 집단시설 대량 감염 사태에 따라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소독, 발열체크 여부 및 특이사항 등 대응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대상 시설에는 당분간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운영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예방 생활수칙을 재차 안내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감염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에 시설 종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코로나19 방역 군 제독차 투입 완주군민 평생학습 지원 '팍팍'

완주군 - 35사단 협력으로 삼례·봉동 긴급방역 실시

완주군이 35사단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했다.

9일 완주군은 35사단과 협력해 인구가 밀집돼 있는 삼례읍과 봉동을 지역을 대상으로 제독차량 2대와 군병력 10여명을 투입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부대 제독차량이 직접 코로나19 긴급방역에 나서면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다.

제독차량은 오전에는 우석대와 원룸촌, 삼례시장, 터미널, 삼례역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봉동을 터미널과 둔산리 인근 도로를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0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군정 최고의



9일 완주군은 35사단과 협력해 인구가 밀집돼 있는 삼례읍과 봉동을 지역을 대상으로 제독차량 2대와 군병력 10여명을 투입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가치인 만큼 군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활동에 나선 것이다"며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꼭 필요한 장소에 방역이 강력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전국적인 확진 환자 급증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무엇보다 방역소독이 시급하다

고 보고 13개 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방역 대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6월부터 추진해온 하절기 방역을 3개월 이상 앞당겨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조기방역 소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찾아가는 희망배움터·동아리 지원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완주군이 평생학습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완주군은 2020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희망배움터 사업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희망배움터 사업은 성인 10인 이상의 학습자들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시간과 학습장소를 정해 신청하면, 행정에서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비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13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평생학습 희망배움터 수강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향후 마을 경로회관 등에 총 98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130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좌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 민요, 풍물 등의 일반 강좌와 악기분야, 컴퓨터, 천연염색 등 전문분야의 키움강좌로 구성됐다.

각 강좌별 30강의 범위 내에서 주 1회 1~2시간 정도로 운영되며, 학습에 필요한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진행된다.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모집과 심사를 거쳐 16팀 183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200만원 이내 학습 경비를 지원받아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학습공동체로서 다양한 재능 나눔을 펼칠 예정이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평생학습 희망배움터와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평생학습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서 4월 중에는 평생학습 거점 배움터 및 퇴근길 소확행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관내 우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추진

'2020년 글로벌시장 진출 토털 마케팅 사업' 참여업체 모집

김제시가 코트라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2020년 수출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토털마케팅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시장 진출 토털마케팅 사업'은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수출역량에 따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으로는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시장 조사 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

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등 총 6개 세부사업들이 있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가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가진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시장 진출 장려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한다.

김제시는 작년 9월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출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수출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사업을 통해 관내 참여기업 6개사에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판권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직접 판매력이 제고되는 등 참여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김제시는 특정 해외 유망시장을 직접 겨냥 해외관료 확대와 촉진을 위해 금년 7월경 미국(LA, 시카고) 시장을 대상으로 관내기업 7개사가 참여하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추진 중으로, 김제시 수출 활력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김제시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아 기업매출이 늘도록 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해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길찾기가 수월해지고 화재나 범죄등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제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도로명판 5,027개, 건물번호판 3만7,019개, 기초번호판 1,260개, 지역안내판 30개, 총 4만3,336개이다

김제시에 설치된 모든 도로명 시설물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훼손 또는 망실로 확인된 시설물은 올 8월까지 모두 정비하여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2013년부터 매년마다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도 망실 및 훼손된 시설물 9,158개를 정비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안정성, 시인성 등을 확보하여 우편·택배 등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길 찾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윤재호 민원직적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부실로 인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민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추진

완주군이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내달 17일까지 추진한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직불제는 지난해 12월 31일 '농업소득보전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3개 직불제(쌀·밭·조 건물복지지역)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 시행된다.

기본직불 중 소규모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규도입 등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업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현황화 작업을 먼저 실시한다.

소농직불제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정보는 직불제 신청 전에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 중 어느 직불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 농업인은 반드시 현황화 해야한다.

따라서 농업인은 읍면에서 이미 배부한 경영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필지 추가, 삭제 등 변경사항을 기재한 농

업경영정보 변경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1만㎡ 미만 소농) 등을 구비해 4월 17일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현황화해야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게 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읍면을 통한 경영정보 변경 신청 접수에서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을 통해 신청·접수 하면 된다.

이규진 기술보급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정보 변경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현장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성덕면, 지평선 시정 홍보함 설치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신속한 행정 및 대민 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 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시정소식지 등 각종 자료 및 공문 등을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면사무소 입구에 31개 마을별 '지평선 시정 홍보함'을 제작·설치하여, 이장회의 및 마을 담당공무원 출장 시 각종 자료 및 공문 등을 전달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됐다. 또한 이장 및 부녀회장 등이 면사무소를 방문 할 경우 시정홍보함에서 공문 및 홍보물을 빠르게 수령하여 각종 사업신청 시 보다 빠른 행정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수 성덕면장은 "시정 홍보함의 설치로 인하여 이장(주민)과 직원의 소통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